



## We cannot let domestic violence accompany the spread of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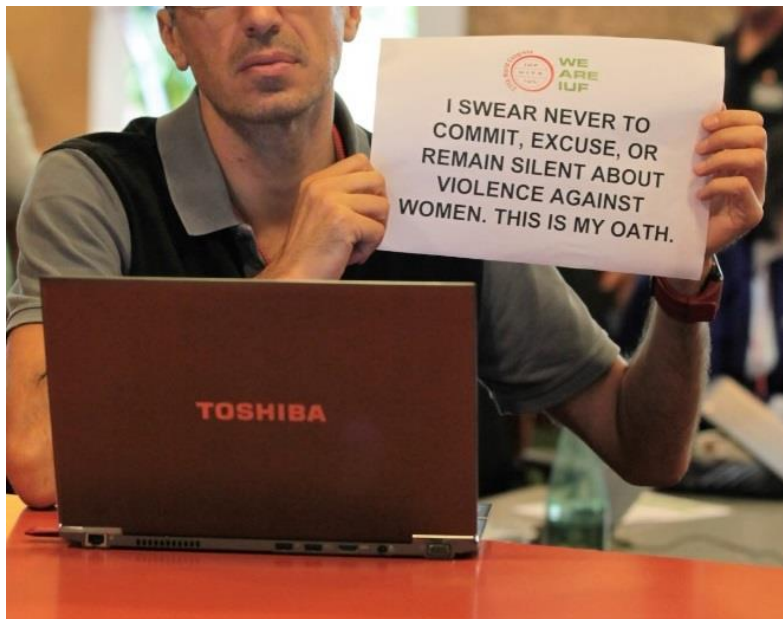
### 코로나 19 확산에 동반한 가정 폭력을 좌시할 수 없다

17.04.20 News

2020 년 4 월 17 일 뉴스

During the last 12 months, more than one in five women in the world has been the victim of violence inflicted by their partner. The health,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is making the situation worse. In just a few weeks, several countries have recorded a significant increase in cases of domestic violence, including France, Tunisia, Argentina and Singapore.

지난 12 개월 동안, 전 세계 여성 5 명중 1 명이 파트너에 의한 가정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코로나 19 팬더믹(전염병)의 건강, 경제, 사회적 영향으로 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불과 수주 만에, 프랑스, 튀니지, 아르헨티나, 싱가포르를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 가정 폭력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The response to this phenomenon is as urgent as the policies adopted to stop the pandemic itself. Governments must do everything possible to implement or strengthen a comprehensive warning and protection system and send a clear message indicating there will be zero tolerance and no impunity for this crime. Several countries<sup>1</sup> have already taken such initiatives.

코로나 19 팬더믹을 막기 위해 시급하게 취했던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런 가정 폭력에

<sup>1</sup> <https://www.unwomen.org/-/media/headquarters/attachments/sections/library/publications/2020/issue-brief-covid-19-and-end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en.pdf?la=en&vs=5006>



## 코로나 19: IUF 가맹 노조를 위한 정보 & 자료

대처하기 위해 시급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적인 경고 및 보호 시스템을 이행 및 강화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몇몇 국가에서는<sup>1</sup> 이미 이러한 조치들을 취한 상태이다.

Trade unions are working hard to safeguard jobs and ensure the health of members who are still going to work. Health and safety also depend on countering violence and harassment, including sexual harassment and domestic violence, as underlined in ILO Convention 190 (C190) and Recommendation 206 (R206)<sup>2</sup>, instruments that are more relevant than ever. For a long time now IUF affiliates have included the struggle against domestic violence in their health and safety and equality policies. In a compelling moment at the most recent IUF Congress, male delegates publicly pledged they would never commit, excuse or ignore violence against women.

노동조합은 일자리를 보호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조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ILO 협약 190 (C190)과 권고안 206 (R206)<sup>2</sup>에서 밝히고 있듯이 보건과 안전 보장도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한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대응 여부에 달려 있다. 이 협약과 권고안은 현 상황에 비추어 그 어느 때보다 관련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IUF 가맹 노조는 보건과 안전 및 평등 정책 내에 가정 폭력 근절 투쟁을 포함시켜 왔다. 최근 IUF 총회에서 가장 기억할만한 장면은 남성 대표단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지도, 이에 대해 변명을 하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하는 순간이었다.

Unions play an essential role in pressing governments to act against domestic violence and in campaigning for ratification of C190. Moreover, many women workers who have been sent home are still in touch with their union representatives or colleagues. Unions can also pursue a range of other initiatives, for example, provide members with details of refuges for women and children, contact numbers for psychological support, information on distributors of food aid, updates on the legal situation and information on ways to support wome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sup>3</sup>. Finally, as set out in C190 and R206, a response to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in the world of work must be included in the collective bargaining agenda. Comrades, colleagues, employers; we all have a role to play.

노동 조합은 가정 폭력 반대 법안 마련을 위한 대정부 압박과 ILO 협약 190 비준 캠페인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 머물고 있는 많은 여성 노동자는 지금도 노동조합 지도부와 동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또한 다양한 내용 예를 들어, 여성과 아동 쉼터, 심리상담 전화번호, 식량 배급 정보, 여성폭력 관련 법률 정보 업데이트, 가정 폭력 여성 희생자 지원 방안에 관한 정보<sup>3</sup> 등을 조합원에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LO 협약 190 과 권고안 206 에서 밝히고 있듯이, 노동계의 가정 폭력 근절 대응책을 단체 교섭

<sup>2</sup> <http://www.iuf.org/w/?q=node/7173>

<sup>3</sup> <https://learning.elucidat.com/course/5e875ae4d0715-5e8c6417dfc28>

**COVID-19: Information & Resources for IUF Affiliates**  
**코로나 19: IUF 가맹 노조를 위한 정보 & 자료**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의 지도부, 노조원, 고용주 모두는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해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다.

**Source URL:** <http://www.iuf.org/w/?q=node/7584>

**출처 URL:** <http://www.iuf.org/w/?q=node/7584>